

고귀한 베뢰아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뢰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고상한 성품을 지녔으니, 그들은 말씀을 매우 열렬히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그들 중 많은 이가 믿게 되었으며, 저명한 그리스 여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되었다.”

사도행전 17:11,12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성경 연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적절한 때입니다. 성경은 역대 최고의 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광범위한 역사는 지구의 경이로운 창조 작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지상 창조물을 위한 궁극적인

거처로 준비되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의 페이지 안에는 인류 가족에게 그 중요성과 의미를 증명하는 압도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위대한 우주 하나님의 신성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의로운 원칙은 다른 모든 책들과 차별화되며, 현대 사회에서도 진리의 한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다양한 책들 속에서, 구속이라는 주요 주제와 죄와 죽음의 파괴로부터 인류 가족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발견됩니다. 이는 성경의 신적 영감에 의한 조화와 목적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진리의 다양한 원리들로 향하게 되는데, 각 영감 받은 저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기록했음에도 다른 이들이 쓴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문명의 등불이라 불려 왔습니다. 그 도덕적·윤리적 가르침은 그 어떤 책보다도 인류의 마음을 고귀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거의 고갈되지 않는 영감과 위로의 메시지 원천입니다. 많은 이들이 슬픔의 시기에 성경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삶의 불확실한 장면들을 마주할 힘을 얻었고, 또 어떤 이들은 수많은 교훈 속에서 확신을 찾았습니다.

특히 성경은 기독교의 교과서입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인간 가족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드러냅니다. 이 메시지는 장엄하고 궁극적인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미래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권능과 권세의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로 정점에 이를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를 "세대를 위한 계획"이라 말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련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3:11

성경의 놀라운 저자와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관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창공이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일을 전파하도다. 날마다 말하며 밤마다 지식을 나타내도다. 소리도 없고 말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들의 소리는 온 땅에 미치고 그들의 말은 땅 끝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해를 장막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용사 같도다. 해는 하늘 끝에서 떠오르며, 다른 끝까지 그 길을 돌고, 그 온기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소외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법도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도다. 주의 교훈은 바르사 마음에 기쁨을 주시나이다 주의 법도는 빛나사 눈의 빛이 되시나이다 주의 경외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시니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귀하며 꿀보다, 꿀통의 꿀보다 달도다." 시편 19:1-10

믿음을 위한 사역

초기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인 개종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믿게 된 형제들이 연구, 봉사, 교제를 위한 교회 공동체를 조직하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섭리로 역사가이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중요한 사건들 중 많은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1,2; 누가복음 1:1-4

바울과 다른 이들이 전파한 진리의 지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선포하였으니, 곧 죄로 병들고 죽어가는 인간 가족을 궁극적으로 구원하고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13; 골로새서 1:20; 디도서 2:11). 진리의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위해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신부 일부로서의 지위를 받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작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기쁘게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리라." 누가복음 12:32

충성하는 자들은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과 함께
그분의 하늘 왕국을 누릴 특권을 얻으며, 땅의 모든
가족에게 복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16-
18). 이 영광스러운 계획은 또한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성한
통치 아래 세워질 그 미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
의 부활을 마련합니다. 요한복음 5:28,29; 사도행전
24:15; 고린도전서 15:25,26

길 위의 갈등

사도들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여행하는 동안, 많은 새로운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양떼 안으로 들어와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백성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편견과 갈등은 종종
발생하여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유대 율법의 익숙한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사이에 마찰이 존재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가르침들은 많은 이들이 처음 듣는 것이었다.

본문 바로 앞 부분에서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탈출하여 데살로니가에서 베뢰아로 향하는 여정을 떠났다(사도행전 17:10). 그들이 도착했을 때, 현지 회당에서 받은 환영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 그들은 형제들의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영적 성장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 점이 그들을 데살로니가 회중보다 "더 고상한" 존재로 구별해 줌을 주목했다.

칭찬할 만한 특성

이 경우에 사용된 "고상하다"라는 단어는 베뢰아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나타낸 마음과 인격의 훌륭한 품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진리의 교리와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열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더 나은 관점에서 읽으면 고상한 마음가짐에 대한 생각이 확장되며,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도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말씀을 큰 열망으로 받아들였으며, 매일 성경을 살펴 이 일들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고, 저명한 그리스인 남녀들도 다수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11,12). 이처럼 이 형제들이 가진 갈망은 단순히 매일 성경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큰 열망"으로 성경을 신중히 살피고 증명하려는 노력에까지 강조되어 있다.

바울과 베드로의 증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여 보라. 선한 것은 불들라." (데살로니가전서 5:21). 사랑하는 형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는 그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디모데후서 2:15). 후에 그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네가 배운 것들, 확신한 것들, 누가 가르쳤는지 아는 것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는 거룩한 성경들, 그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그 가르침을 계속 지켜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4-17

사도 베드로도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의 좋은 청지기로서 하라. 누구든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면 하나님의 힘 주시는 대로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하려 함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4:10,11

사도 바울과 베드로 등 사도들의 권면과 격려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질 때, 오순절 이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같은 영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진리의 올바른 청지기가 되는 것을 포함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특히 지금 이 "현재의 악한 세상"의 마지막 해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갈라디아서 1:4

이것들을 기억하며

거의 이천 년 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놀라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여전히 축복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항상 상기시키리라. 비록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가르침 받은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 있지만 말이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너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곧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임박했음을 보이셨으니,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항상 이 일들을 기억하도록
힘쓰리라. 베드로후서 1:12-15

사도는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그리스어: 임재]을 너희에게 알릴 때, 교묘히
꾸며낸 우화들을 따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분의
위엄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을 때, 탁월한
영광 가운데서 그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16-18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인 성령을 통해 진리를 받는다고 더욱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에 더욱 확신을 갖습니다. 그들의 기록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아서, 새벽이 밝아오고 그리스도 곧 새벽별이 너희 마음속에 비추실 때까지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는 성경의 예언이 결코 예언자의 자기 뜻이나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그 예언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전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1:19-21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에서 분명히 밝힌 바는, 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생명을 바친 자들에게 한 것임을 알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된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니,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이, 지금

보지 못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 곧 너희 믿음의 결실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7-9

이 진리의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도 계시되지 않았으니, 옛 선지자들에게도,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아니었다. 그는 설명하였다. “그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열심히 탐구하고 찾았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따를 영광을 미리 증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또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지 찾고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에게 계시된 바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섬긴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니,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이 일들을 자세히 살피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함께 너희에게 주어질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베드로전서 1:10-13

위로부터 오는 지혜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 가장 초기에 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서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처음 전해진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에게는 변하심이 없으시며 변덕이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17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며, 성령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가 자기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모든

일에 듣는 데는 빠르고 말하는 데는 더디하며 노하는 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18,19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섭리에 관해 야고보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항상 순수하고 거룩하다는 점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다음에 평화로우며 온유하고, 쉽게 설득되며,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위선도 없다. 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자들에게 평안 가운데서 심겨진다." 야고보서 3:17,18

앞서 언급한 구절들은 하늘의 지혜가 신성한 성품과 조화를 이루며 작용한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비록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영이 평화로우나, 사도는 그 중요성을 순결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참된 지혜는 거룩함과 순결과 일치할 때에만 평화롭습니다. 그것은 오직 거룩한 것과만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순결을 따르며,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 평화롭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자비로 가득 차" 기뻐하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비추심을 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진리의 빛

선지자 이사야는 빛과 생명 및 진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신성한 목적을 제시하며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로 인도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로 그들을 이끌리라. 내가 그들 앞에 어둠을 빛으로, 굽은 것을 곧게 하리라. 내가 이 일을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니 그 의가 빛나는 광채 같이 나타나고 그 구원이 타오르는 등불 같이 될 때까지." 이사야 42:16; 62:1

다른 많은 성경 구절들도 빛이라는 특별한 선물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생명은 주께로부터 나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기쁜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이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가운데서 행하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과 같아서 점점 더해 완전한 날에 이르느니라." 시편 36:9; 89:15; 119:105; 잠언 4:18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위한 지침과 영적 관점으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감추거나 등잔대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눈은 네 몸의 등불이니라 네 눈이 맑으면 온 몸이 밝고, 그러나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네가 가진 빛이 실은 어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라. 네가 빛으로 가득 차 어두운 구석이 없다면, 네 온 삶이 마치 투광등이 너를 비추듯 빛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1:33-36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은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길을 걷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려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표징이다. 예수님 탄생 수세기 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주의 계명이 나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니 나를 살리시려고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밤을 기다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함이니이다” 시편 119:143-148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멸시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제철에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편 1:1-3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영혼과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합니다.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들어가신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잡으라.” 히브리서 4:12-14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으며, 자신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분의 겸손한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내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대로 심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내 뜻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또 있으니 그가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요한복음 5:30-32).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가 나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였으며 그분의 사역을 위한 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너희는 세례 요한을 조사하러 사람을 보냈고, 그가 나에 대해 한 증언은 참된 것이었다. 물론 나는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너희가 구원받기를 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고 빛나는 등불 같았으며, 너희는 잠시 그의 말씀에 열광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인이 있으니, 곧 나의 가르침과 나의

기적들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 일들을 이루게 하셨으니, 그것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증명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생각하여 성경을 연구하나니 바로 이 성경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33-37,39

베뢰아 사람들의 유산

사도 바울이 베뢰아 성도들을 성경에 대해 고상한 마음을 가진 학자라고 평가한 것은 주님의 모든 백성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긍정적인 교훈이다. 이 형제들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으며, 그것이 진리를 이해하는 유일한 진정한 근원임을 강조했다. 그들은 믿는 바의 최종적 증거로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인식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작 본문에서 다른 번역본을 인용하면, 베뢰아 형제들의 유산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나은 태도를 지녔고 더 고상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경향과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환영했으며, 매일 성경을 살펴보고 조사하여 이 일들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 중에는 저명한 헬라인들도 적지 않게 있었으며, 여자들도 남자들과 함께 믿게 되었다."

사도행전 17:11,12